

인간 영의 변형을 위한 기독교교육

우지연(온누리교회/전도사)

pleasure-20@hanmail.net

한글 초록

인간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영이 하나님과 대면을 통해 변형되기를 거부하면서 인간의 영은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영의 위기는 궁극적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지 못한 영적 문제로부터 기인한 것이지만 인간은 이러한 부재를 인간의 성취와 기술과 같은 노력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그래서 과학기술시대에 발생하는 인공지능, 로봇, 복제 등의 문제는 인간론과 관련되며, 정신이라 불리는 마음, 혹은 이성적 발전도 세계의 발전 못지않게 파괴와 혼동에 대한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집중한 교육은 온전한 교육이라 할 수 없다. 마음은 인간의 사고와 의지, 신념과 같이 인간 삶을 선택하고 이끌어가는데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것은 기독교교육이 아닌 다른 학문의 영역에서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영은 마음과 다르게, 인간의 한 영역을 담당하나 부분적이고 단편적이라 할 수 없고 인간 삶 중심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의 중심이 된다. 기독교교육은 다른 학문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인간의 다른 구성요소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분명하고 단순하게 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과 만남이 인간 영의 변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즉, 기독교교육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제 속에 인간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이며 영을 통해서 보다 완전한 인간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기독교교육은 하나님과 인간의 대면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이는 보다 근본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만남이라는 말에는 초대자와 초청자의 상호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만남이라는 말 대신 하나님의 주도성을 인정하고 인간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체자로서 하나님을 강조하고자 변형이라 표현하고, 일상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경험할 수 있는 현장으로 예배를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인간 영의 변형이 일어나기 위한 준비와 과정을 살펴봄으로 기독교교육이 인간 영의 변형을 목적으로 할 때 이것이 개인적 경험이나 확신으로 끝나지 않고 신앙공동체에서 계속적인 변형의 변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신학적 발판을 제공하고자 한다.

《 주제어 》

인간의 영, 변형, 인공지능, 마음, 인간 발달, 제임스 로더

I. 들어가는 말

과학기술시대의 인간은 허무와 결핍을 부정하고, 더 나은 대안과 경험을 제시하고자 인간힘을 쓴다. 인간은 질병과 죽음과 같은 문제에 맞서 기술로 해결하고자 하지만 자기 자신의 근원을 잃어버리면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없기에 개인과 사회는 엄청난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한 인간에 대한 부정, 혼동, 편협한 태도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바른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허무와 공허, 죽음과 질병과 같은 부정성을 부인하지 않고 이를 수용하고 현대 문화와 과학이 구축하고자 하는 세계에 대한 모순과 개인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다른 차원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인간에게는 영이 있다.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 변형되어 모든 것을 새롭게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인간의 영은 다른 것들과 같이 발달하며 확장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인간의 영이 관계할 때 그것은 개인이 경험하는 좁고 편협한 특성이 아니라 모든 것을 확장하고 연결하는 다양한 삶의 변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독교교육은 표면적인 문제나 방법을 위한 교육을

넘어 좀 더 분명하고 단순하게 비전과 현실을 나란히 붙잡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하나님의 영과 관계를 통해 인간의 영이 변형을 필요로 하고, 인간과 하나님과 근원적인 관계성을 피력하고 있는 제임스 로더의 관점을 빌어 인간 영의 변형을 위한 기독교교육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마음이 아닌 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1. 성경에서 사용된 마음의 의미

성서에 나오는 마음에 연관된 용어는 히브리어의 לב (레브) 또는 לבב (레바브)으로 ‘레브’는 598회, ‘레바브’는 525회 사용되었고, 관련 어휘까지 포함하면 모두 858회 쓰였다. 이 단어들은 동물이나 인간의 심장, 가슴 부근을 가리키며 육체적인 생명의 자리를 뜻한다. 히브리인들은 심장을 체내의 중심기관으로 삼고 신체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삼상 25:37, 왕하9:24, 삼하18:14, 렘4:19).

또한 구약성서에서 심장은 전인격을 형성하는 가장 내적인 중심, 인간 존재의 감추어진 부분을 의미한다. 심장은 모든 삶의 자리 역할을 하는데,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심장의 기능은 현대인이 보는 뇌의 기능과 같다. 심장은 모든 활동, 감정과 지성, 의지 활동이 발생하며, 그 활동들이 인간의 외적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 생각했다(신재식, 2012, 181). 그래서 볼프(Wolf)는 히브리어의 ‘레브’이나 ‘레바브’의 용례를 살펴볼 때, ‘마음’이나 ‘감정’으로 옮기는 것보다 ‘이성’의 맥락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Wolf, 1996, 94-95). 또한 신명기 29장 3~4절은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라고 하면서 ‘마음’(심

장)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린다. 눈의 사명은 보는 데 있고, 귀의 사명은 듣는 데 있는 것처럼, 마음(심장)의 사명은 이해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 사야 6장 10절에서도 눈은 보고, 귀는 듣고, ‘레바브’(심장)는 깨닫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구약에서 ‘심장’은 사고의 거점으로 등장한다. 만약 ‘레바브’가 폐쇄되어 통찰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가장 본질적인 역할인 깨닫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솔로몬이 구한 들을 줄 아는 마음(understanding heart)도 바른 내용을 알아듣는 기관이 바로 심장이다(왕상 3:9-12). 그리고 ‘레바브’는 지을 수 없는 의식을 기록하는 곳(잠 7:3)으로, 다니엘은 환상 중에 들은 말을 자신의 ‘레바브’(심장)에 굳게 간직했다(단 7:28). “심장을 무엇 위에 둔다”는 표현은 “어느 것, 또는 누구에게 주목한다”는 의미이다(삼하 9:20, 25:25, 학 1:5). 히브리인들에게 심장은 모든 집성된 경험과 지혜를 자기 것으로 숙고하는 독특한 기관이다(잠 28:26).

요약하면 구약에서 심장을 의미하는 ‘레바브’는 지식 전체이며, 사고가 이루어지는 장소라 할 수 있다. 인간이 사고하거나 반성과 명상, 숙고와 같은 깊은 성찰이 심장에서 행해진다. 오늘날 머리카 두뇌의 활동으로 표현되는 인식 능력, 이성, 이해, 통찰력, 의식, 기억, 지식, 반성, 판단, 방향 선택, 지성 등은 ‘레바브’의 원래 의미에 속하는 것이다. 이 ‘레바브’가 대부분 한국어로 번역된 성서에서 ‘마음’으로 표현되었다.

히브리 성서를 번역한 그리스어 성서 70인 역본을 살펴보면, 심장을 의미하는 ‘레브’나 ‘레바브’를 번역할 때 가장 선호한 용어가 신체 기관으로서 ‘심장’을 의미하는 ‘카르디아’(καρδια, heart)이고, 가끔 ‘누스’(vous, mind)도 사용했다. 히브리 성서의 ‘레브’와 신약성서의 ‘카르디아’는 동일하게 심장 즉, 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마음으로 번역되는 그리스어 단어인 ‘누스’는 신약성서에서 바울 서신과 목회서신에서 배타적으로 나타난다(신재식, 2012, 183-184). ‘누스’는 육체에 반대되는 것으로, 육체(flesh)는 저급한 인간 본성을 지칭하기 위해 종종 사용되었다. 바울은 인간이 ‘누스’(마음)를 통해 신의 진리를 이해

한다고 의미하지만, 그는 신학적 의미에서 ‘영’(spirit)과 혼동하지 않았다. 바울에게 ‘마음’은 사고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주체로 생각되는 전체 자아(the Self)를 의미한다. 하지만 ‘영’은 신적으로 부여 넣어진 도구나 행위 주체자(agent)로, 인간은 이 ‘영’을 통해 신과 직접 관계를 갖는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바울은 ‘영’과 ‘마음’을 대조하며 구별한다.

이상의 논의를 살펴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심장은 한국어 성경에서 마음으로 번역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깨달음, 분별, 판단을 뜻하는 이성의 자리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음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하다. 그래서 마음을 위한 교육은 이성을 위한 교육으로 인간의 일부에 해당하기에, 총체적인 인간을 이해하고 교육을 위한 지향점으로 삼기에는 부분적이고 단편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음은 학자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생각, 인지, 기억, 감정, 의지, 그리고 상상력의 복합체로 드러나는 지능과 의식의 단면이다. 옥스퍼드 사전에 따르면, 마음은 뇌의 인지 과정을 포함하며, 어떤 실체의 생각과 의식의 능력이다(Oxford Dictionaries, 2017). 또한 마음은 사고의 일부분이다. 인간에게 심장은 물리적으로 만질 수 있는 중추신경계로 심장이 컴퓨터의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사고는 소프트웨어와 같다. 사고는 마음보다 넓고 포괄적이다. 즉, 마음이 소프트웨어의 기능에 접근해 사고에 일부 영향을 미친다(Jennings, 2019, 31-33). 이러한 견해는 인간 마음의 변화를 교육의 목적으로 삼을 때 인간 삶의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에서 다루는 일부 변화만을 추구할 뿐이다.

그래서 기독교교육은 일반 교육의 분과처럼 마음, 이성, 신념을 넘어 궁극적인 근원을 다루는 차원에서 인간의 마음이 아닌 영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본질에 근접한 교육적 시도는 이성에 근거한 인간의 기술이나 문제들에 대한 다른 차원의 접근이다. 또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은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고, 영이 빠진

마음을 위한 교육이 자아의 욕망을 대변하고 채우는 방식이기에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면밀히 살펴보고 영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은 대두되어야 한다.

2. 마음을 목적으로 할 때 생기는 문제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모든 내면 동기를 반영한 힘의 결정체다.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욕망을 대변한다. 인간이 발명한 기술은 편리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면에 인간의 가치와 판단을 통한 미래에 대한 생각을 기술로 대체한다. 인간은 기술에 자리를 내주고 생각을 멈춘다. 기술은 인간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지만, 기계를 소유하면 인간에게 편리와 행복을 안겨주는 것 같은 착각을 준다. 그러나 가상공간 안에서 가상현실을 살아갈 때 더 외로워지고 외톨이가 될 수 있다(김난예, 2020, 16). 이것은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결핍, 허무, 부재와 같은 존재론적인 불확실성을 촉발하게 해 인간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붙들게 하고 계속 만들게 한다.

장뵈 사르트르(Sartre, Jean-Paul)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부재’(absence)를 이렇게 설명했다. 만약 카페에 앉아서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서서히 다가오는 것은 절망적인 느낌일 것이다. 만남에 대한 기대감으로 구성된 이 사람의 세계는 곧 또 다른 차원에 의해 침해당한다. 가령, 2차원적인 삶에 제3의 차원인 결핍, 정적, 공허가 들어온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즉시 이 세계를 다시 구성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차원은 아직 명료하게 의식되지 않은 것이 있다. 기다리던 사람은 “그는 조금 늦어질 뿐이야. 교통이 막히나 보지”라고 말하다가, “아, 안 오는구나.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마지막으로 “아마 약속을 잊어버렸나 보지? 어떻게 된 일인가 물어봐야겠는걸”하고 말할 것이다. 사르트르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인간에게 있는 맹점을 인식으로 보충하고 부재를 매우고자 서두르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성에 기반한 인간의 문제는 결핍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간은 인간의 마음에 있는 허무를 보충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구성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인간은 항상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에 있는 허무가 인간의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아의 내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 내부에서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인간 밖에 있는 세계로 재구성하고자 애쓸수록 인간은 오히려 그 원천(source)으로부터 분리된다. 또한 인간이 '나'와 '나의 세계'에 의존할수록 그것은 이 세상 어디에나 허무가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Loder, 1988, 138-139).

마찬가지로 인간은 과학기술을 힘입어 노화, 질병, 죽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끝없이 노력한다. 한스 모라벡(Hans Moravec)은 인간이 새로운 몸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반론을 제기하는 “몸-동일성 입장”을 비판하고, “패턴-동일성”이라는 대안적 관점을 제시했다. 몸-동일성은 복제에 의한 생명의 연장을 할 경우, 한 인격체가 인간의 몸으로 구성된 물질에 의해서만 규정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신체 구성 물질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나의 개별적 인격이라 인정한다. 반면, 모라벡이 주장하는 패턴-동일성은 한 인격, 예컨대 나 자신의 본질을 내 머리와 몸 안에 일어나는 패턴과 과정으로 정의하고, 그 과정이 보존된다면 나라는 인간은 보존되고 있다고 여긴다. 그에게 신체와 같은 몸은 젤리에 불과하다(Moravec, 2011, 202-203). 이러한 입장은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생명과 죽음의 순환처럼 오래되면 죽고 사라지는 원리를 거부하고 몸이 아닌 기억으로 인간의 불확실성과 허무를 채우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은 가까운 미래에 인간의 지능과 컴퓨터가 결합한 초지능이 구현될 것이고, 더 나아가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인 특이점(the singularity)이 온다고 예측한다. 인공지능(AI)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 인공지능의 비생물학적 부분이 순수한 인간의 지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해지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는 인간의 역사를 이전과 단

절시킬 정도로 막강해진다. 그리고 특이점 이후에는 인간과 기계 사이에, 또는 물리적 현실과 가상현실 사이에 구분이 사라진다고 보고 있다 (Kurzweil, 2019, 26-27, 49-52.).

그런데 커즈와일이나 모라벡과 같은 과학자들은 과학기술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일 뿐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도 희망적이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으며 인간이 내린 결정도 불확실하다. 인간의 본질적인 결핍과 불확실함을 거부하려는 인간의 본성은 교만한 인간의 자가당착이다. 과학자와 기술전문가가 만든 유토피아는 행복을 보장할 수 없고 인간을 온전히 이해하지 않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만든 기울어진 인간 이해이다. 또한 기술이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든가, 기술은 가치중립적이라는 생각도 위험하다. 도리어 기술로 인한 혜택과 자원은 기술 능력의 보유 정도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이고 불균등하게 배분될 것이다(임창호, 2018, 25-27).

물론 인간의 질병과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은 인간의 오래된 욕망으로, 인간은 끊임없이 과학의 발달을 힘입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왔다. 하지만 새로운 인간종인 인간-로봇의 결정판을 마주하게 될 때, 과연 인간은 누구인지에 대한 신학적, 철학적 물음을 촉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영(spirit)을 인지하지 않은 채 활기를 띤 과학기술시대에 기독교 교육은 기술에 대한 방어나 대처, 재구성에 따른 구조의 변화가 건설적인 기반에 적합하게 형성되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3. 인간 마음과 영의 관계

인간의 마음은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 사령탑으로 더 치밀하고 성취적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준다. 하지만 과학기술사회의 흐름에 맞춰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인간의 불안은 도리어 공허를 부정하는 방어에 기초해 있다. 이는 자신의 취향을 포기하고 집단에 녹아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타인의 생각과 관심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며 그 집단에서 격리되지 않으려고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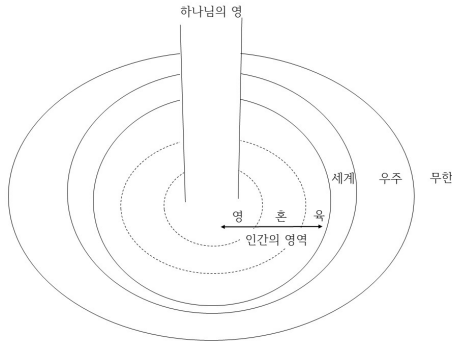
력하는 고독한 군중의 모습을 띤다(양승준, 2020, 180). 또한 공허의 실제 현존을 받아들일 수 없고 방어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인간의 자기 파괴적인 행동과 인간 중심적인 절망과 무기력한 상태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결 및 응답으로 인간 '영'의 역할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며 기독교교육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영은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호보완성은 하나의 대상에 대해 상반되고 상호 배타적인 설명을 통해 그 대상에 대해 보다 완전한 이해가 가능할 때 이 두 가지의 설명 사이에 상호보완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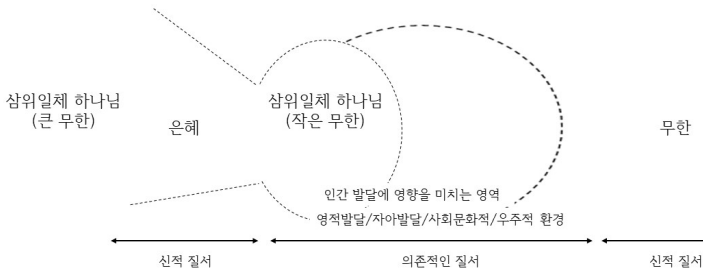
신학적으로 상호보완적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나타난 신성과 인성의 관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설명하면서 신성과 인성은 상반되기는 하지만 서로를 필요로 하며 둘 중 어느 하나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으면서도 신성이 인성에 대해 존재론적 선재성을 지니고 있다. 기독교교육학에서 예수 그리스도론 즉, 그리스도의 양성론은 기독교교육 이론 및 실천을 위한 분명한 표준이 되며 이러한 긴장과 통합은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의 관계성 속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Loder, 2020, 92-93).

상호보완성의 개념은 인간의 영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을 연결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가시적인 현실, 육체, 언어, 지능, 윤리적 판단 등이 인간의 예고(ego)를 중심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영의 임재는 인간의 자아를 넘어 찾아오시는 사건으로 인간의 영에 관계되며 영향을 미친다.

단면



측면



[그림 1] 인간 발달과 영역들

이 그림은 인간 발달을 창조주와 상호성의 의미에서 설명하기 위해 제임스 로더(Loder, 2006, 107)가 고안한 것이다. 이 그림에 따르면 인간의 영, 혼, 육은 인간에게 속한 영역으로, 인간의 영역은 의존적인 질서를 따른다. 인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의존적 질서를 따른다. 이 질서는 인간이 만든 세계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하나의 축은 인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들로 그림에서 보듯이 영적 발달, 자아발달, 사회문화적, 우주적 환경이 여기에 속한다. 발달은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적응하

고 더 높은 목표로 전진한다. 유일하게 영적 발달은 다른 요소와 다르게 인간에게 속하고 신적 질서와 통하는 경로이다. 그런데 창조주의 영이 아닌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인간적 열심과 목적, 만족을 달성하고자 영성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다른 발달의 영역과 마찬가지로 의존적 질서에 속한다. 더 쉽게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대체물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함으로 발전한다.

또한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교체할 수 있는 경로가 감추어진 질서를 따른다.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영의 만남은 인간에게는 뜻하지 않게 일어난 우발적 사건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에게 이 사건은 우연한 일이고 의존적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신적 질서를 따르는 일로 전환된다. 이 신적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은 만난다. 이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인간의 노력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찾아오심, 은혜라 일컫는 것만이 남는다.

그리고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면,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신적 질서와 우발적인 질서들 사이에 조화가 일어난다. 즉, 인간이 경험한 초월은 인간의 연속적이고 의존적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질서에 인간의 혼, 육, 세계는 정돈되고 인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들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개인적 확신으로 설명한다. 흔히 교회에서 수련회, 사경회나 부흥회 등과 같은 특별한 시간이나 매주 드리는 예배는 인간의 영의 변형을 목적으로 두고 하는 교육적 행위로 그 안에서 인간의 영은 원형이 되는 하나님의 영과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배우나간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에게 배우기도 하지만 인간에게만 배우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에게 배우며, 이러한 모습은 변증법적인 연관성을 갖는다.

III. 영의 변형을 위한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기초로, 영의 변형이 일어날 가능성이나 빈도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독교교육의 일차적인 목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주선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도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만남을 청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주도성은 인간을 변형하며 구원을 위해 찾아오시는 특성이기도 하다.

1. 영의 변형을 위한 준비

인간 영의 변형은 먼저 영이 가지고 있는 관계적 특성을 이해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인간의 영적 정체성은 물질적인 형태로부터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가 그것 밖에 있는 어떤 존재와 관계할 때 가능하다.

에브너(Ferdinand Ebner)는 이것을 ‘나’(I)라고 부르는 영적 정체성으로 이해했다. 반면, 나가 ‘없는’ 정체성은 나라는 존재 밖으로부터 떨어져 나온다. 그래서 인간 밖에 있는 ‘너’(Thou)와의 관계성이 인간의 영적 정체성이 되고, 나(I)와 너(Thou)와의 관계는 ‘나’만큼이나 ‘너’와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즉, ‘너’가 있어야 ‘나’가 있다(Loder, 2006, 46). 에밀 브루너(Emil Brunner)는 기독교의 믿음이 신과 인간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이해했다. 모든 인격은 관계 가운데 존재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상대자이고 서로 대면한다. 그러나 대면의 상호영향을 떠난 인간은 자기를 볼 수 있는 반사를 받지 못한 것이기에 얼굴을 잃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보지 못한다. 그래서 믿음은 자아의 보호를 완전히 포기하고 행동할 때 가능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과 대면할 수 있다(Loder, 2006, 49). 루이스(C. S. Lewis)는 어머니를 잃은 깊은 상처와 개인적인 공허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는 자기가 그렇게도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절대 타자가 자기를 향해 사정없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신론자인 자신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겸허에 마지못해 굴복당했다. 이후 하나님과 대면한 루이스는 신에 대한 자신

의 부정적인 태도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없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긍정하게 되자 자신의 자아를 새롭게 긍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른 것들과도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한다(Loder, 1988, 246-258). 성령은 실존 차원에서 하나님에 의한 확신 체험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 이것이 인간에게는 고행과 같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루이스 외에도 바울, 어거스틴, 루터, 키에르케고르 등의 많은 사람이 경험한 것들이며 일정한 형태이기도 하다. 때때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과 다른 질적 차이로 하나님의 준비를 알지 못한 채 변형이 시작되기에 순순히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반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의도적인 변형의 현장은 예배를 통해서이다. 예배는 찬양, 기도, 설교, 친교에서 기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기본 문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다. 교육 현장은 예배 현장으로 아는 것이 가르치는 것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통한 새로운 배움의 시작은 그리스도와 관계함으로 자신을 배우고 발견하고 변화할 때 일어난다. 그래서 영의 변형을 위한 교육의 장은 곧 예배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리스도의 기본 문법 즉, 피조세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의 문법을 배울 수 있다(Loder, 2020, 524-525). 또한 시대가 변해도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이다. 예배에서 인간의 영은 열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지역과 문화, 시대적 상황에 따라 고정되고 고착되었는지 몰라도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방향을 알 수 없는 역동적인 경험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다. 그리고 변형의 경험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발견되는(discovered) 경험으로 자신을 보고, 죽고, 다시 사는 역동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회복의 소망과 상실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의 적극적 표현이고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 발견되도록 자기를 내려놓는 자리이다. 그래서 영의 변형을 위한 준비로 예배는 본질적으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2. 왜 영의 변형인가?

기독교 전통은 인간을 전인적 존재로 알기에 영, 육, 혼을 구별할 뿐 분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을 이분설이나 삼분설로 분류하든 인간의 몸과 영, 혼에는 수평적인 조화와 통일을 이루고 있다. 삼분설이나 이분설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발전되어야 하겠지만 본 논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영에 관한 측면이다. 예컨대 하나의 요소는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친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기도하면 생각이 바뀐다. 그런데 인간이 다른 생물과 다른 것은 인간에게 있는 영(spirit)이 있어서다. 식물은 몸(body)만 있고 동물은 몸(body)과 지각(mind)을 소유하지만, 인간은 영이 있다. 이것이 있어서 다른 생물과 다르며, 수평적 차원에서 인간의 변화로도 도모할 뿐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 차원, 수직적 차원을 탐구할 수 있게 된다.

몰트만(Moltmann)은 인간의 몸과 영혼의 순환적 형태를 상호 간의 필요와 상호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사귀의 관계로 이해했다. 인간의 참된 사귀는 삼위일체의 형상으로 규정된다. 인간의 영혼과 몸, 의식과 무의식, 의지적인 것과 무의지적인 것 등 사람이 인간적인 기본 차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상호 간의 침투와 구별을 가진 통일성의 순환적 관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Loder, 1988, 373-374).

하지만 인간을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차원으로 조망하더라도 육체와 영은 우위가 있다. 인간의 육체가 기계로 대체되거나 몸이 아닌 지식으로 전환되어 소외당하는 것도 반대하지만,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것은 영의 공간으로, 영은 인간을 온전하게 하는 존재론적 우선성을 가진다. 그래서 육체와 정신의 상위를 차지하는 것은 영이다.

이러한 견해는 신학이 아닌 다른 학문에서도 시도되고 있다. 양자물리학에서 발표한 이중슬릿 실험(double-slit experiment)은 19세기 초 토마스 영(Thomas Young)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실험의 목적은 빛이 파동이나 물

질이나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것으로 시작됐다. 이때만 해도 빛이 입자라는 견해가 주류를 차지했기에 파동의 속성인 간섭무늬가 보이지 않을 것이라 짐작했다. 그러나 실험의 결과는 반대였다. 영은 이 실험에서 빛의 파동성을 증명하게 된다. 이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되고, 1927년 클린턴 데이비슨(Clinton Davisson)과 레스터 저머(Lester Germer)가 전자빔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입자성과 파동성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양자물리학은 실험을 통해 물리학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양립할 수 없는 반대되는 성질이 조화롭게 존재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닐스 보어(Niels Bohr)는 상보성(相補性)의 개념으로 관계성을 설명했다. 상보성의 개념에서 파장은 수학적 공간에 존재하지만, 상보성에 따르면 파장이 입장에 대해 우선권을 가진다.

양자물리학의 법칙을 통해 인간을 연구하면 인간도 빛, 전자와 마찬가지로 “보이는 나”(육신의 나)와 “보이지 않는 나”(영혼의 나)가 있다. 그리고 물리학에서 파장과 입자 사이의 양극단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지만, 관계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나를 영혼이라 할 때 상보성 개념에 따르면 영은 육신에 우위를 차지한다.

또한 성경은 인간 창조가 하나님의 영(ruach)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 즉, 영으로 충만한 삶의 시작이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에 우선적일 뿐 아니라, 그 영을 통해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은 연결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신 중의 신이시며 성부와 같은 동일한 본체의 하나님임을 확정하면서,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는 예수는 두 본성(two natures)이 공존하는 하나의 위격(person)이라는 근본적인 기독교 교리를 표현하였다. 그리스도는 연합되고 통합된 위격이며,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며, 그의 인성과 신성은 혼합되지 아니하며, 이 양성이 하나의 개별자 안에서 조화롭게 결합한다(Noll, 1999, 115).

이것을 인간의 인식을 가져오면 “주체적 나-목적적 나”로 나뉘어 생각할

수 있다. 주체적 (I)는 인간을 의식하게 하는 주체자이고 명령자다. 이것은 경험하지 않은 나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내가 아니라 할 수 없는 나이다. 그래서 주체적 나는 인간 밖의 영역에 나로, 영의 자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목적적 나(me)는 실제적 나로 주체적 나에 의한 실행자이고 행위자로 인간의 인식체계에서 경험자다. 인간은 주체적 나와 목적적 나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주체적 나”는 “목적적 나”에 대해 우선권을 유지하며, 이러한 맥락은 칼케돈의 정의에서 신성이 인성에 대해 우선권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이해하면 된다(Loder, 2006, 31-32). 코박스(kovacs, 2011, 105)도 인간성의 핵심을 ‘영’이라 보며, 인간의 영은 스스로 그 상실로부터 되돌아갈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는 방향을 상실한 인간의 영을 변형시키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롬8:16)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자유롭게 된다.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도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구속해서 해방된 자유의지(liberum arbitrium liberatum)를 제공하며, 접시저울 유비를 사용하면서, 은혜가 저울의 접시가 악한 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저울추를 제거하며 인간이 필요한 온전한 추를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McGrath, 2014, 860-864).

만약 영이 발달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연, 세계, 우주에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본래적 관계에서 벗어난 것이기에 자기의, 자기중심, 자기편향, 자아충족 및 자아실현에서 빗나갈 수 없다. 오직 인간이 영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 신적 질서와 우발적인 질서들 사이에 조화가 생긴다. 그래서 신학이, 그리고 기독교교육이 인간 삶의 의미와 관계, 목적을 제시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3. 영은 어떻게 변형되는가

인간의 이성은 확실한 인식과 경험할 수 있는 세계를 구축하는데 안정감

을 느낀다. 그러나 인간의 영은 이해할 수 없는 한계와 불안전함을 수용해야 한다. 예컨대,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선물이라는 것이 모름지기 주는 자의 편을 대변할 뿐, 받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균형을 일으킨다. 언제 만날 수 있을지,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불확실한 인식이 인간을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한다. 그런데 이러한 애매함을 수용할 때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

제임스 로더는 성령과 인간의 영의 관계적 특성을 규명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한 인간의 변형을 강조한 학자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영은 다음의 과정을 통해 변형된다.

첫째, 문제 또는 갈등(conflict)이 제시된 상황에 대한 수용이다. 인간의 문제는 항상 갈등으로 나타나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갈등을 수용하면 이때부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탐구(scanning)가 시작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식이 아닌 무의식으로 이어져, 이러한 상태를 막간 휴식(interlude)라고 부른다. 셋째, 이런 저런 무의식적 노력이 계속되다가 어느 한순간 통찰이 일어난다. 통찰은 갈등상황, 또는 문제상황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일어난다. 이러한 통찰은 분명한 확신과 함께 주어지기에 분명한 해답임을 확신하게 된다. 넷째, 확신은 이때껏 억압되었던 에너지를 방출하고(energy release) 문제를 해결된다.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세계가 열린다. 다섯째, 직관과 함께 주어진 통찰이 맞는지 입증(validate)하고 싶어진다. 이것은 자기에게는 너무나 분명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입증하고 싶은 검증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식 지평의 변형이 일어난다(Loder, 2020, 254-255).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인간 영의 특징

변형의 목적	인간 영의 질서 및 하나님의 영과 관계 회복
변형의 단계	① 갈등 ② 상황 파악을 위한 휴지 ③ 상상에 대한 구조적 작업 ④ 에너지의 방출 및 인식자의 개방 ⑤ 이해 혹은 검증
변형의 특징	① 하나님의 영을 통한 시공간 및 해석 달라짐 ② 확산적 경험의 고백 ③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와 선택 있음 ④ 하나님의 영의 관계 안에서 달라지는 비대칭적 구조적 질서를 따름
변형에 관한 신학적 지침	① 그리스도에 주도된 사건이다. ② 변형된 개인에게는 자기희생적인 사람이 나타난다. ③ 그리스도에 대한 객관적인 표현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성서, 성례전, 예배 및 신학 저작물). ④ 종말론적인 미래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 ⑤ 공동체적인 사회상황을 요청하고 있다.

변형의 과정은 어떤 단계에서든지 시작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 항상 첫 단계가 갈등은 아니다. 갈등이 아닌 통찰에서 시작될 수 있고, 질문을 이해하기도 전에 직관을 통해 답을 알게 되는 일도 있다(Loder, 2020, 260-261). 또한 제임스 로더가 제시한 영의 변형의 특징은 찰나에 오는 깨달음, 통찰과 같은 방식도 포괄적으로는 인간 밖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인간의 사고는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생각나게 되는 것도 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한 개입으로 봐야 적절하다. 인간의 영을 위한 교육이 지식을 강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려면, 로더가 밝힌 것처럼 영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특성을 이해해야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영과 관련된 변형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함께 들어 있다. 변형과정에는 인간의 의식, 상상, 지식, 인격 등을 배제하지 않는다. 엄격하게 구분해 인간의

영과 혼을 분리할 수 없지만 단절된 지식이나 문제들을 통합하고 영이 발달해간다는 점은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컨대 초대교회로부터 “오소서, 성령이여”라는 초청은 성령의 자유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현존을 통해 놀라운 연합을 기대하고자 하는 인간적 노력이다. 이것은 또한 기독교교육이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궁극적 토대이자 교육의 주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협력하고 인간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끄는 의도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기독교교육자가 해야 할 주된 역할이 있음을 밝혀준다.

V. 나가는 말

기독교교육의 고민은 인간의 범위를 넘어서야 한다는 데 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인간이 갖게 되는 질문들은 인간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없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가령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칼케돈 신조와 같은 학문의 방법론적 모델이 인간의 학문방법 모델로 간주하는데 무리한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와 같다(조성국, 2010, 126-129). 인간의 경험이나 기적과 같은 회심과 변화에 관한 것은 인간을 총체적 과정 속에서 인식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언어적 명료성의 한계와 애매성 등의 많은 과제를 안고 있지만 인간의 영과 같이 복잡한 내용을 배제하면 이성 과 논리로 치우친 지성적인 교육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은 근본에 쌓인 허무나 공허와 같은 내적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은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며 자신들의 무한 욕망을 충족하려고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이 구축한 문화, 역사, 세계는 영이 죽은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에 결국 다른 제반 문제들과 복잡하게 얽혀 문제가 더 커지거나 반대로 파편화되어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다른 문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변형된 개인의 경험을 잘 설명하지 못하거나 신앙공동체가 이를 해석하지 못하면 개인은 모순에 빠지거나 다른 교육 즉, 인간 영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영의 위기는 인간 영이 하나님과의 접촉(plug)이 빠져 있는 문제에서부터 기인한다.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세상에 대한 개방과 공허와 같은 문제를 뛰어넘는 초월로 나아갈 수 있다. 즉, 인간이지만 인간 밖으로부터 뺀어지는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인간은 문제를 광범위한 관점으로 조명할 수 있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대변할 수 있는 영의 교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영의 변형을 위한 기독교교육은 하나님의 영과 교제할 수 있는 기초단위로 먼저, 인간의 영을 이해하며 이것을 기독교교육의 목적으로 삼을 때 과학기술시대의 문화에서 일어나는 비인간화의 심각한 왜곡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이해한다. 또한 인간 영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변형되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들도록 촉진되어야 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은 예배이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며, 하나님과 인간이 통합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하는 현장이고, 인간이 자기 실존에 있는 허무의 깊이에 대한 관심과 성찰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변형의 중심이다.

참 고 문 헌

- 김난예 (2020). AI시대 여성의 공감적 감성 함양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과제. **기독교 교육논총**, 62, 11-41.
- [Kim, N. Y. (2020). Tasks of christian education for developing empathic sensibility ability of women in artificial intelligence er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2, 11-41.]
- 신재식 (2012). 그리스도교에서 본 마음과 몸: 정경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종교와 문화연구소**, 19, 171-195.
- [Shin, J. S. (2012). Mind and body in Christianity: Focused on canonical tradition. *Hanshin University Center for Religious and Cultural Studies*, 19, 171-195.]
- 임창호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독교교육 방향성 재고. **기독교교육논총**, 56, 11-44.
- [Lim, C. H. (2018). Rethinking the direction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6, 11-44.]
- 양승준 (2020). 에클레시아와 에스포지토의 면역 개념에 입각한 신앙공동체 이해의 새 지평. **기독교교육논총**, 62, 161-186.
- [Yang, S. J. (2020). A new horizon of understanding of the faith community based on the concept of immunity between ecclesia and esposito.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2, 161-186.]
- 조성국 (2010). 제임스 로더의 신학적 관점에서 본 인간발달: 영의 논리. **갱신과 부흥**, 7, 120-129.
- [Joh, S. G. (2010). Theological perspective of james loder on human development: The logic of the Spirit. *Reform & Revival. Column*, 7, 120-129.]
- Jennings, R. T. (2019). **마음, 하나님 설계의 비밀**. 윤종석 역. 서울: CUP. (원저 2017 출판)
- [Jennings, R. T. (2017). *The God-shaped heart: How correctly understanding*

God's love transforms us. MI: Baker Books.]

Kenneth, E. K. (2011). *The relational theology of james e loder.* New York: Peter Lang Publishing.

Kurzweil, R. (2019). **특이점이 온다.** 김명남, 장시형 역. 서울: 김영사. (원저 2006 출판)

[Kurzweil, R. (2006). *The singularity is near when humans transcend biology.* Westminster: Penguin Group.]

Loder, E. J. (1988). **삶이 변형되는 순간 : 확신 체험에 관한 이해.** 김성민, 이기춘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원저 1981 출판)

[Loder, E. J. (1981). *The transforming moment: Understanding convictional experiences.* San Francisco: Harper & Row.]

Loder, E. J. (2006). **신학적 관점에서 본 인간발달.** 유명복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원저 1998 출판)

[Loder, E. J. (1998). *The logic of the Spirit: Theological human development in theological perspective.* San Francisco: Jossey-Bass.]

Loder, E. J. (2020). **통전적 구원을 위한 기독교교육론.** 이규민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원저 2018 출판)

[Loder, E. J. (2018). *Educational ministry in the logic of the Spirit.* Eugene, OR: Cascade Books.]

McGrath, E. A. (2020). **신학이란 무엇인가.** 김기철 역. 서울: 복있는사람. (원저 2001 출판)

[McGrath, E. A. (2001). *The Christian theology reader.* Malden, Mass.: Blackwell.]

Moravec, H. (2011). **마음의 아이들: 로봇과 인공지능의 미래.** 박우석 역. 서울: 김영사. (원저 1988 출판)

[Moravec, H. (1988). *Mind children: The future of robot and human intelligence.*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Michael S. H. (2019). **보이지 않는 세계: 성경의 초자연적 세계관 회복하기.** 손현선 역. 서울: 좋은씨앗. (원저 2015 출판)

- [Michael S. H. (2015). *The unseen realm: Recovering the supernatural worldview of the Bible*. Bellingham, WA: Lexham Press.]
- Noll, A. M. (1999). **터닝 포인트: 기독교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12가지 전환점**. 이석우, 강효식 역. 서울: CUP. (원저 1997 출판)
- [Noll, A. M. (1997). *Turning points: Decisive moments in the history of Christianit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 Wlof, W. H. (1996). **구약성서의 인간학**. 문희석 역. 왜관: 분도출판사. (원저 1973 출판)
- [Wlof, W. H. (1973). *Anthropologie des alten testaments*. Munich: Beck.]
- 옥스퍼드 영어사전 (2020. 5. 8). 마인드. 옥스퍼드대학교출판부, https://www.oxfordlearnersdictionaries.com/definition/english/mind_1?q=mind, 추출일: 2020. 5. 8.
- [Oxford Learner's Dictionaries. (2020. 5. 8). Mind. Oxford University Press]
- 존 그리빈 (2010. 6. 5). 이중 슬릿 실험.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51423&cid=60290&categoryId=60290>, 추출일 : 2020. 12. 10.
- [Gribbin, J. (2010. 6. 5). Double slit experiments. Naver Knowledge Encyclopedia]

Abstract

Christian Education for Human Spirit Transformation

Ji Yeon Woo

Education Director, Onmuri Presbyterian Church

Humans are created as spiritual beings that can relate to God. However, when a human spirit refuses to transform through confronting God, it experiences a crisis. A spiritual crisis results from disconnecting with God, who is the ultimate foundation, but we humans try to overcome such absence through accomplishments and efforts. In this technological age, the ethics issues of AI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and cloning are related to anthropology. The development of the mind, heart, and logic cannot suggest a basis for destruction and confusion as much as the development of the world. In fact, education focused on the human mind cannot be considered holistic. Mind, together with thought, will, and belief, plays a crucial role in making choices and leading a human life. So it is actively studied in other domains other than Christian education. However, although the human spirit takes care of some territory of humanity, unlike the mind, it can neither be partial nor fragmentary. Instead, it manages the transformation that influences the core of human life. Therefore, Christian education must clearly concentrate on the spirit rather than on other human elements, intentionally concerning spiritual transformation through encounters with God. In other words, Christian education is the passage connecting a human spirit to God's presence at work, which enables us to understand the human being as a whole. For this, we must put our efforts to increase the chances of encountering God through Christian education. While "Encounter" requires both parties' interaction, "Transformation" stresses God as the main agent and His proactive nature. I

also want to emphasize “worship” as the opportunity to communicate and experience God in our daily lives. By examining the preparation and the process of the spiritual transformation of humans, this paper would offer a theological foundation for continued transformation of the human spirit in the faith community, rather than personal experience or conviction.

《 **Keywords** 》

Human Spirit, Transform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Mind, Human development, James Loder

- 투고접수일 : 2021년 5월 12일
- 심사완료일 : 2021년 6월 28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6월 28일